

대구 U대회 준비상황 대국민보고회 및 오찬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계기로 대구와 경북, 그리고 국가가 총체적으로 도약하는 기호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성공한 잔치가 되길 기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계획만 발표되고 실행이 남은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실천된 것은 다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은 몇 가지도 다 잘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준비는 아무리 다해봐도 잔치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걱정이 태산 같을 것입니다. 잘되어야 할 테고, 잡음이 있더라도 손님들이 많이 있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잔치를 해 본 경험에 비쳐보면 다 성공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정성 기울여 협력할 것입니다.

꼼꼼하고 세심히 만전을 기울여 준비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런 대회 치르고 나면 국가적 국민적 역량이 돋보입니다. 대회설비에서 진행프로그램까지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가진 과학기술과 경제적 토대, 문화 예술적인 역량이 유감없이 드러나는 것이 보입니다.

이번에도 꼭 그렇게 성공하리라 봅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자랑하겠지만 한국의 안전관리는 세계에 자랑할 만합니다. 여러 차례 국제대회 치렀지만 완벽하게 안전관리 한 것을 보면 한국의 안보 내지 치안기관의 역량을 다시 한 번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활발한 자원 봉사를 통해 시민들 역량도 유감없이 발휘해왔습니다. 이것 또한 한국의 시민문화를 발전해나가면서 훌륭한 계기 만들어나가는 것이니겠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국제대회가 잘 끝나고 나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민들이 뛰어난 시민의 역량을 한 번 더 증명해주길 바랍니다.

대구시민들은 지난 2월 지하철에서 엄청난 참사를 겪었습니다. 그곳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공황상태 빠질 만큼 충격 받았지만 합심해서 슬기롭게 극복하고 U대회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는 것 보면 훌륭한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훌륭하게 치러주길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회는 잔치에 참여하는 북한에 보내는 평화의 메시지

또 하나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라고 해서 경북은 억울한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경북에 분산하는 것은 뜻 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분산 하지 않아도 대회를 치를 텐데, 분산한 것은 대구와 경북이 남남이 아니라 하나로 가야한다는 지역적 결속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보기 좋고 돋보입니다. 여기에 전 국민이 정성을 보이면 대구대회가 전 국민의 잔치로 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다짐해주시시오. 나는 어떻게 지원할까 직무상 개인적으로 궁리하겠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대구U대회

가 대한민국의 대회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국민모두가 남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뜻 깊을 것입니다.

대구는 세계적인 섬유도시라는 것을 자랑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성숙한 대구시민의 모습을 내보이는 기회일 것입니다. 이번 잔치가 성공하시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북한의 참가도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북 응원단 참가가 대회분위기 살렸는데 이번에도 대회분위기 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 참가를 통해 민족이 화합하는 미래를 보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전달할 평화의 메시지가 엄청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상이 전 세계로 전해지면서 한반도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환영하고 잘 해나가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합니다.

아까 조해녕 위원장 보고하실 때 지원관계 말씀하신 것 같은 그 문제 즉석에서 해결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